

“전북 전략산업 발전 역량 발휘해야”

김관영 지사, 직원들과 도정운영 추진상황 소통 전운중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 특강도 진행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북의 미래를 위해 바이오, 방위산업 등 전북 전략산업 발전에 직원들의 역량 발휘를 당부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29일 3월 소통의 날을 개최, 김관영 도지사가 900여명의 도청 직원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갖고, 명사 초청 특강 및 혁신도정상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먹거리를 위해 바이오, 방산, 식품, 문화관광, 이차전지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고, 이러한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핵심인데,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융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자라”고 말했다.

이어진 명사 초청 특강에서는 전운중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이 ‘산업기술 R&D(연구개발)와 이노베이션’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의를 진행했다.

전 원장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기관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 26.5조원 중 2조9,000억원이 평가원 예산이며, 작년 신규 연구개발 예산 5,200억원 중 전북에는 8.4%인 433억원을 지원하였는데, 기계·로봇 연구개발을 통한 산업·농업 분야의 자동화, 미래차 전환을 위한 핵심 부품 및 공정 연구개발, 배터리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 소재·공정 연구개발 등이 대표적 사례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지역 R&D(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과 에너지, 스마트농생명 등 전북 혁신성장산업을 매칭하여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내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 등 산·학·연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전북특별자치도 공영장에서 열린 2024년 3월 소통의 날 행사에 김관영 도지사와 명사로 초청된 전운중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을 비롯한 청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인권도시 구현’ 시군과 힘 모아

도·시군 인권정책협의회 열고 인권 주요 정책 공유

참여형 인권친화도시·인권교육 등 중점 추진사항 강조

전북특별자치도가 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도시 전부를 구현하기 위해 시군과 힘을 합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도 인권 주요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시군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군 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북자치도는 ‘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도시 전북’이라는 비전 아래 △도민 인권증진 정책 확대·강화 △참여형 인권친화도시 기반 강

화 △보편적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침해 상담·조사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예방체계 확산 △인권증진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증진 협력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홍보 등 중점 추진 사항을 강조했다.

또한, 시군에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인권 조례의 조속한 제정 △도내 인권 역사현장을 중심으로 제작한 인권지도 활용 △도내 시·군 인권침해

사안발생시 유기적 소통 △인권친화적 지역축제 개최를 위한 사전컨설팅 참여 △온누리인권지원사업 추진 등 협조사항을 요청했다.

정호운 전북자치도 인권담당관은 “인권교육을 위한 인권교육과 인권보호 및 구제방안 홍보를 통한 도민 인권증진문화 확산이 이뤄져야 한다”며 인권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인권행정 기반 구축을 위해 도와 시·군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도시 전북’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학교급식 식중독 대응 유관기관과 협업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29일 보건환경

연구원, 도 교육청, 14개 시·군 등 17개 기관과 지역학교급식 식중독대응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를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정확한 역학조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 식중독 발생 현황 분석, 기관별 식중독 예방 추진 계획, 식중독 주요 원인체인 노로바이러스 및 살모넬라 식중독 집중관리 방

안, 식중독 예방 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다.

김정 전북자치도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협의체 회의가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만들어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상·공중 입체작전... 산불 24시간 감시

자치도, 감시인력 지상 투입·CCTV가동·무인 항공기 동원

대형산불이 우려되는 3~4월 건조기온을 맞아 전북자치도가 지상과 공중 입체작전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을 펴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봄철 적은 강수량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칫 입산객 실화나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인한 대형산불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전북자치도는 자체적으로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감시와 신속 진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700여명의 산불 전문 진화대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초기 신속한 출동 체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무인 감시카메라(CCTV) 130여대가 쏘는 날씨에도 연기와 화염 포착 등 감시를 위해 연일 가동되고 있으며 첨단 드론 13대는 일정 시간 남원과 완주, 진안 등 주요 산 등을 비행하며 예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6대의 열화상 카메라도 현장에 투입해 야간 산불 진화와 잔불 정리 등에 활용하는 등 산불시스템 고도화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 중이다.

산불은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한 만큼 전북자치도는 산림청,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산불 예찰 활동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이들 순찰과 예찰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산불 감시원 감시에서부터 먼거리 연기 등의 포착이 가능한 무인 감시카메라(CCTV) 감시, 심지어 공중에는 무인 항공기(드론)를 띄우는 등 지상과 상공에서 입체작전을 벌인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서 800여

명인력 투입해 야간 산불 진화와 잔불 정리 등에 활용하는 등 산불시스템 고도화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 중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대형 산불은 사소한 방심에서 비롯돼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앗아간다”며 “유연 이·통장 등을 통해 등산로 화기 사용금지 안내를 철저히 해주시고 야산 부근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과 화목보일러 재(?)처리 등에 신중을 기해주시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AI·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도민 대상 8개월 간 총 7개 온·오프라인교육과정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인공지능(AI)·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해 지역산업 디지털 전환을 도모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기업 재직자 및 인공지능(AI)·빅데이터에 관심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도와 전북디지털융합센터가 주관해 4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간 총 7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무료 교육이다.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희망하는 도민은 4월 15일까지 ‘전북 디지털융합센터 교육관리시스템(edu.jtp.or.kr)’에 접속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모든 교육 과정은 선착순 접수이며 신청 후 도내 거주가 확인되면 교육수강이 가능하다. 자세한 커리큘럼 및 향후 교육일정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jtp.or.kr) 및 전북디지털융합센터 교육관리시스템(edu.jtp.or.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대면교육은 작년 높은 교육수요를 보였던 R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파이썬’, ‘디지털 포트폴리오(ChatGPT)’ 세 과정으로 6~8월 중 전북테크비즈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또한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데이터분석전문가’, ‘파이썬 마스터’ 등 4개 과정은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edu.jtp.or.kr)를 통해 운영된다.

올해 가장 먼저 시작하는 ‘데이터분석전문가’ 자격증 취득 과정 수강을

최장석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산업과장은 “AI·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을 통해 도민들이 비용 부담 없이 최신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며, “지역 경제의 성장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